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4일 화요일 음 10월 10일 (2물)

기상정보

구름많음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9℃, 낮 최고기온은 13~15℃로 예상된다.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chances for different regions like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and moonrise and moonset times.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food safety and disaster preparedness.

월드뉴스

반려견 물려가자 몸던져 구한 70대 건주

악어 입 벌려 반려견 꺼내

반려견이 악어에게 물려가자 재빠르게 연못으로 뛰어들어 구한 70대 미국 건주가 화제다.



악어에게 반려견 구하는 월뱅크스. 연합뉴스

23일 미국 CNN 방송과 지역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리처드 월뱅크스(74)는 지난달 말 3개월 된 카발리에 킹 찰스 스페니얼 종 반려견 '거너'를 데리고 연못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악어 한 마리가 '미사일처럼' 뛰어올라 거너를 물어갔다.

고나와 양쪽 무릎으로 고정하며 17초간 힘겨루기를 벌인 후 간신히 악어 입을 벌릴 수 있었으며, 경직 않는 소리를 내던 거너도 그제야 악어 입에서 탈출했다.

월뱅크스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연못으로 따라 뛰어들어가 반려견을 물고 물 속으로 들어간 엘리게이터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린 후 악어의 입을 벌렸다. 근처 CCTV에 촬영된 동영상 보면 월뱅크스는 처음 연못 안쪽에서 악어 입을 벌리기 위해 온힘을 다했으나 쉽지 않아보였다.

그는 악어에게 손을 물렸으며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거너도 배 부분에 악어의 이빨 자국이 남았지만,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복했다.

그는 "(야생동물은) 자연의 일부이자 우리 삶의 일부"라면서 반려견을 물어갔던 악어를 안락사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website details.

한라칼럼



김관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최근 교육계는 전국적으로 미래의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도 신생아 출생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지역 간에 통합되거나 폐교가 되는 학교도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예상 합계 출산율은 0.8명대 시대에 이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출생아는 45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56명 감소하여 해마다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2020년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3100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의 과제

명으로 2018년보다 7.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청년들의 대학 졸업 유예, 취업난 심화로 인한 결혼 기피와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 현상과 여성의 출산율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생 수 감소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수를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붕괴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로 내년도에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인구 질적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7, 8년 후부터 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학교 수업 중

에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주저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앞으로 제주지역 읍·면 단위에서 학생 정원 미달 사태는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존폐는 그 지역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지역마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바로 지역 사회의 자존감과 닿아있었다. 그렇기에 마을마다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땅을 기부채납하기도 했고 학교 설립 시기에 노력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학교 주변에 세워진 공덕비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단지 교육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03년 9만2278명, 2010년 9만303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7만9674명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변화는 1965년부터 근래까지 베이비붐 세대와 가족제

획 같은 시대 상황이 학생 수 증감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970년과 1980년대 초 베이비붐 세대와 1990년대 초 베이비붐 예외 세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 폐지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육아 교육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도 시급한 문제다. 타지역에서는 다섯째를 낳으면 3000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열린마당

119 안심콜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강준오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 생활 안전 등의 출동을 전화번호 '119' 하나로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을 시키고 있다. 비록 전화 신고가 간단하긴 하지만 통신 상태 불량이나 신고자가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상황실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 전달 못 하거나 필요로 하는 내용을 상황실에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9 안심 콜 서비스는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지병, 복용중인 약 등을 소방에 미리 등록하여 등록 번호로 신고 시 바로 등록정보를 소방 출동대에 알리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등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PC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리등록도 가능하도록 돼있다. 가입 방법은 PC인터넷 포털에 119

안전신고센터(HTTP://119.go.kr)를 검색해 홈페이지 상단의 '119 안심 콜 서비스' 메뉴를 누르고 '안심 콜 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등록하면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는데 PC와 같은 방법으로 119 안전신고센터(HTTP://ul119.nfa.go.kr)를 검색해 접속하면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확인 문자가 발송되고 이후 등록된 연락처로 신고하면 바로 소방에서 출동대에 사전정보를 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출동 진행 상황이 전달된다. 사전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홈페이지로 정보변경도 가능하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신고하기도 가능한데도 말을 좌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바일로 입력만으로 신고가 가능해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1년, 한 달, 하루, 1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중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1분 1초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신이나 가족이 지병을 가지거나 나이가 많아 걱정된다면 '119 안심 콜 서비스'에 등록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몇 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길 바란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



고광인 (사)제주중독예방교육원장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들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학령전 환기(초4·중1·고1) 청소년 133만 1441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의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8120명(17.1%)으로 지난해 2만 2018명(10.7%)보다 증가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사용시간이 늘어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

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고 생활은 윤택하게 해주는 유용한 아이템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에 중독이 될 경우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스마트폰의 중독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부작용 연구들에 따르면 강박증, 우울, 불안, 대인 예민증, 편집증, 적대감, 공포,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못 하도록 물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독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차단하여 억제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일정 이용 시간을 정해 두거나 패스워드 사용 등 제한을 두도록 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리일보 감골요목 advertisement with details on products like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and '한림종묘'.

감골신품종분양 advertisement for 2021 spring products like '레드앵무목', '천혜향', and '황금향'.

감골요목 아스미 4, 5년생 advertisement for Asami products like '카라향', '유라조생', and '레드앵무목'.

제주통신기반구축한라가책임집니다 advertisement for Hanra Transil (주) with a list of services like '기존·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